

## 국민의식과 사회문제 해결 대안으로서의 기업가정신 탐색\*

이 채 원\*\*

강 경 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형성하는 핵심동력 역할을 한다. 즉, 기업가정신은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 및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정신은 창업으로 인식되거나 기업가적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으로 국한되어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가정신이 국민의식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이 국민의식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가정신이 국민의식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의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의미와 구조를 순환적으로 밝혀내는 자연주의적 질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삶의 현상에 대한 본질적 측면을 밝힐 수 있는 현상학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에 대한 오랜 연구와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국민의식과 사회문제 해결로서의 기업가정신을 핵심질문으로 하여 기업가정신의 의미가 사회나 국가에 어떤 의미를 미치는지를 질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가정신의 본질 속에는 6개의 주제가 내포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첫째, 편향된 가치로 인한 사회 구조의 불균형, 둘째, 기존의 한계로 인한 사회문제의 악순환, 셋째, 새로운 요구로 인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넷째, 유기체적 기업이 변화하는 동인으로서의 기업가정신, 다섯째, 기업가정신이 주는 역동성으로 인한 기업의 선순환, 여섯째, 경제 및 사회적 가치창출의 원천으로서의 기업가정신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기업가정신 개념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일반적으로 인식되던 창업으로서의 협의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문제를 해결해 주는 시대정신으로서의 기업가정신을 재개념화 한 것은 본 논문의 기여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의 재개념화와 더불어 기업가정신이 국민의식 및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작용하는 여러 사례들을 발굴하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 혹은 관련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사회문제 해결,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개념, 기업가정신 교육

### 1. 서론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국가의 경쟁력을 형성하는 핵심동력(Driving Force)으로 설

명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 교육이 사회전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국가별 경쟁력이 달라지고 세계경제 사회에서 힘의 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World Economic Forum, 2009). 또한 기업가정신은 경제성장, 지속가능 경제의 구축, 일자리 창출,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 및 삶의 질

논문접수일: 2015. 10. 22. 1차 수정본 접수일: 2016. 02. 19. 2차 수정본 접수일: 2016. 04. 05. 게재확정일: 2016. 05. 13.

\* 본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부교수(hlee@seoultech.ac.kr), 제1저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kang@nypi.re.kr), 교신저자

개선 등과 같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09; 2010).

세계 여러 국가들이 기업가정신을 사회 및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과거 우리나라에서 기업가정신은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들에게만 국한된 개념인 창업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이후 기업가정신의 개념은 창업보다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 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이다(배종태, 차민석, 2009)라는 창업 이상의 개념으로 설명되고 널리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개념은 창업보다는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을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 전반에서 그리고 학교현장에서는 기업가정신 개념이 창업과 동일 시 되는 경향이 많으며, 기업가정신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경제 및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기업가정신은 기존 경제에서 나타나는 많은 경제적 문제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가정신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Drucker, 1985).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기업가정신은 관련 이해관계자,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 모두 즉 청소년을 포함한 모두에게 필요한 중요한 개념인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기업가정신을 경제 및 사회문제의 해결 대안으로서의 인식한 바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기업가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9일 투자활성화 방안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정도와는 달리 각 정부 부처 및 교육현장에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각기 다른 접근 및 해석을 하고 있고, 교육현장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창업 지식과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이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곧 이루어질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도 기업가정신의 본질 및 그 가치에 대해서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실정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이 그동안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지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기업가정신 관련분야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기업가정신의 본질과 그 가치를 재정의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식과 사회문제 해결로서의 기업가정신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

피터 드러커는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기업가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를 두고 혼란에 빠져있다고 설명하고 있다(Drucker, 1985). 이처럼 기업가정신 정의에 대해 모두가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지만 기업가정신 연구는 경영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이나 사회학 등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기업가정신의 심리학적 접근은 기업가의 특별한 특성과 행동연구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어왔으며,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자본주의 사회를 탄생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보고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적 활동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기업가정신의 확대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높은 위험 하에서 높은 수익이 가능한 투자환경과 기업가적 기업의 등장을 설명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경영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가정신 분야라는 학문영역을 형성하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업가정신의 정의 및 그 본질을

고찰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영역에서의 기업가정신 연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연구 분야로 정해진 학문영역에서 기업가정신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1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나타나는 기업가정신의 개념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 및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기업가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기업가정신 연구의 주를 이루었다.

Schumpeter(1934)는 기업가를 혁신의 주체인 혁신가(Innovator)라고 정의하고, 이들이 하는 행위를 창조적 파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슈페터의 연구가 기업가정신에 관한 초기 연구의 중심이 되었으며, 그 이후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를 위험감수자로 설명한 바 있다. OECD에서는 기업가를 정의함에 있어서, 기업가란 경제에서 변화와 성장의 주체가 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생성, 확산, 활용을 가속화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경제활동의 범위를 확장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OECD(1999)의 정의는 슈페터의 정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결국 기업가를 혁신자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현숙, 이병희, 이상명, 2012).

기업가정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을 전후로 시작되었으며, Chandler(1977)는 경제 환경, 사회 환경, 기술 환경 등의 변화가 극심한 시대에 외부환경 변화에 맞추어 신속하게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고 기업성장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최고경영자의 중심적인 역할을 기업가정신이라고 설명하였다. Chandler 역시 기업가정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업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터 드러커의 초기 연구는 기업가정신을 기업가들이 갖는 사고체계와 행위양식을 통칭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후에는 기업가에 대한 정의에서 벗어나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으로 내리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관리적 경제(Managerial Economy)로부터 기업가적 경제(Entrepreneurial Economy)로 경제가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업가적 경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창조라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였다(Drucker, 1985).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기업가정신의 정의를 보면,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적 팀과 함께 기회포착,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기회를 획득하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Timmons, 1994). 배종태와 차민석(2009)은 Timmons(1994)의 정의와 선행연구들을 정리 및 종합하여 기업가정신을 정의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가정신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 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이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기회포착,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 가치의 창출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이채원(2014)은 기업가정신을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개념이 기업가정신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업가정신을 '가치와 쓸모를 창출하는 자기혁신'으로 정의하였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강조하던 경제적 가치를 쓸모로 설명하고 있으며, 쓸모만을 강조하던 과거의 패러다임과는 달리 기업가정신 패러다임에서는 가치로움 즉,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는 사회적 가치 및 공익과 공유의 창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개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질로 자기혁신 즉, 자문자답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에서의 역량은 기업가로서의 역량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필요로 하는 자신에 대한 성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의 정의가 다채롭게 정의되고 있지만 공통점은 자원 획득과 활용, 기회인식과 평가, 불확실성

극복 및 새로운 가치창조임을 알 수 있다. 기업가정신은 이러한 정의 하에 여러 맥락에 적용될 수 있으며, 사내 기업가정신(Corporate Entrepreneurship),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가족기업(Family Business), 대학 기업가정신(University Entrepreneurship) 등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도 그동안 창업이라는 주제 하에 많은 정책이 이루어져왔으며, 정책을 기업가적 과정(Entrepreneurial Process)에 비추어 창업의 실질적인 과정에 집중하여 운영되어 왔다 <표 1> 기업가적 과정에 따른 정부정책 포지셔닝 참조).

많은 연구에서 아직까지도 기업가정신이 국가사회 및 국민경제, 사회인식의 전환,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간으로 정의하거나 설명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기업가정신은 국가의 경쟁력,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 그리고 복지와 우리 삶의 생활수준을 제고하는 결정핵심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의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이현숙, 이병희, 이상명, 2012).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교육 현장에서

기업가정신을 어떤 범주로 이해하고 교육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제 기업가정신 개념의 현장 활용 및 개념의 이해 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 2.2 기업가정신 교육에서 정의하는 기업가정신의 개념 및 기업가정신 주요 내용

### 2.2.1 대학교육에서 정의되는 기업가정신 개념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이 정부주도(중소기업청)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이며, 2000년대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창업교육의 일환으로 ‘(벤처)창업론’, ‘창업과 경영’, ‘창업과 마케팅’ 등의 과목으로 개설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최근에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어 양적으로 매우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 2013). 또한 기업가정신을 확산하

<표 1> 기업가적 과정에 따른 정부정책 포지셔닝

	기업가정신 확산	문제해결 및 아이디어 탐색	비즈니스 모델 수립	사업계획	기술사업화
대학창업교육체계 구축	○				
청소년 비즈쿨 지원	○	○			
창업아카데미 지원사업			○	○	○
창업대학원 지원			○	○	○
실적창업리드 등 기업가정신 전파	○				
창업맞춤형 사업화			○	○	○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	○	○
창업아이템 사업화			○	○	○
사관학교식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지원 전담조직 운영			○	○	○
창업교육 인프라 확충	○	○			
자율특화 프로그램 지원	○				
BI 경쟁력 강화 지원			○	○	○

자료원: 홍재근(2014).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 방안.

기 위하여 창업교육센터를 대학 내에 설립하고, 기업가정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학 내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창업교육에 치중되어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창업, 특히, 쇼핑몰 창업, 창업시뮬레이션, 창업학 특강 등과 같은 과목명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및 유럽의 주요대학들에서 개설되는 과목들이 기업가정신, 사내 기업가정신, 가족기업, 사회적 기업가정신, 프랜차이즈 등으로 기업가정신 범주 내의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균형을 이루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현실은 기업가정신 교육이 아직까지 창업이라는 범주에만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업가정신 정의를 광의로 하고 있으나 그 실행은 매우 협의의 개념으로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1 청소년 대상 교육에서의 기업가정신 개념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은 2002년부터 시작된 비즈쿨(BizCool) 프로그

램이다. 비즈쿨(BizCool)은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비즈니스를 배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주로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체험적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청소년들이 기업가적인 자질과 역량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창업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일반적인 기업가정신 광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자리 창출 및 진로의 대안으로서의 접근이 되어 왔다(<표 2> 초중고 대상의 기업가정신 관련 프로그램 참고). 최근 들어서는 인문계학교 및 실업계학교 등의 학교 특성 구분 없이 비즈쿨 대상학교를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학생 선택 프로그램: 미니 컴퍼니 경영’을 통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나 교육 콘텐츠의 부족 및 교사의 부족 등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국가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의 핵심영역은 동기부여(Motivation), 기회창출(Opportunity), 능력향상(Skill)을 중점영역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표 2> 초중고 대상의 기업가정신 관련 프로그램

대상	프로그램명	주관기관	주요내용
초중고교	청소년 비즈쿨	창업진흥원	비즈쿨 학교지원 및 창업캠프 운영
중고교	차세대영재기업인육성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특허청	대학지원, 발명 및 특허교육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 대회 개최
고교	중등기술창업교육패키지	한국과학창의재단	기업가정신과목 개설 및 운영 기술창업캠프, 창업동아리 지원
초중고교	어린이 청소년 경제교실	기획재정부	경제학습 콘텐츠 및 정보제공
초중고교	어린이 경제마을 청소년 경제나라	한국은행	경제학습 콘텐츠 및 정보제공 경제강좌 및 견학 서비스 제공
초중고교	금융교실	금융감독원	학교 방문교육, 청소년 금융교실 운영 등 학습 콘텐츠 제공
초중고교	경제교육종합포털 경제교육	한국경제협회	경제교육 실시, 경진대회 개최 경제교육종합포털 운영
중고생	Wi-Fi 창업과 진로	교육과학기술부	창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료원: 오해섭, 맹염임(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과 정부 공동 주도의 기관인 CEE(Consortium for Entrepreneurship Educator)에서 기업가정신을 기업가적 태도(Attitude), 역량(Skill), 지식(Knowledge) 등의 세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부분에 해당하는 교육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교육기관 자체가 자발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자료 및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주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현상이다.

유럽의 경우는 미국과는 다르게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수준에서 기업가정신을 홍보하고, 기업가정신 교육 시스템 구성 및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근간으로 기업가정신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기업가정신 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90%의 중고등학교에서 이 가이드에 기반하여 기업가정신을 교육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2009년 기업가정신을 국가 전체의 교육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고 대대적으로 교육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기업가정신 교육과 교육혁신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노르웨이는 3개의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기업가정신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모든 교과과정에 필수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지역의 커뮤니티와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어린 학생부터 시작하여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는 근간은 기업가정신은 일생동안 살면서 필요한 기회를 가지로 바꾸는 역량의 학습(an Individual's Ability to Turn Ideas into Action)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비즈쿨 및 발명, 기술창업, 경제교실 등과

같이 협의의 정의에서 벗어나 기업가정신을 사람들이 일생동안 살면서 획득해야 하는 태도와 역량의 학습과정으로 보고 개발된 <새로운모색과 창조:기업가정신 워크북(이채원, Craig, G., 한상희, 2014)>의 주저자인 이채원은 '기업가정신을 가치와 쓸모를 창출하는 자기혁신'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2012년 기업가정신 교육 시스템 설계에 관한 보고서에서 또한 기업가정신을 '개인이 일생동안 살면서 획득해야 할 역량(Competence)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폭넓게 정의하는 시도가 있었다(이현숙, 이병희, 이상명, 2012).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기업가정신 교육 경험을 지향하여, 참여자의 진술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가의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의미와 구조를 순환적으로 밝혀내는 자연주의적 질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삶의 현상에 대한 보편적이면서 본질적인 측면을 밝힐 수 있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참여자의 개인 경험과 삶 속에서 기업가정신의 의미와 방향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 3.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

연구 참여자는 기업가정신에 대해 오랜 연구와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본 연구 목적에 동의한 대상자 5명이다. 참여자는 5년 이상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기관 등에서 근무하면서 현재 기업가정신 관련하여 연구 및 강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

다.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자가 거주하고 있는 연구실 혹은 사무실을 방문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횟수는 심층 면담을 통해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 까지 수집하였으며, 총 7회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 시간은 1회에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을 위해 참여자와의 만남에 앞서 유선으로 연구 목적을 간단히 설명한 후, 직접 찾아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자와의 면담 전에 연구 목적 및 면담 진행 절차를 설명한 후, 면담 내용을 녹음할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면담과 함께 녹음을 시작하였다.

〈표 3〉 연구 참여자 개요

참여자	소속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경험
A	OO대학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보육센터장
B	OOOOOO 연구원	청년 창업 및 기업가정신 사례 및 정책 연구
C	OOOOO 연구원	창업생태계 및 기업가정신 사례 및 정책 연구
D	OOOOOO 대학교	기술 경영 및 기업가정신
E	OOOOOOO 재단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 교육

면담 시 참여자와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에 유선을 통해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로 정하였는데 주로 참여자가 현재 근무하고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을 이끌어 나아가는 질문은 일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기업가정신의 정의’, ‘기업가정신의 본질, 의미 및 가치’를 묻는 질문으로 점차 옮겨갔다. 면담의 주요 질문은 개방형 질문 형태로, 연구의 문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의식과 사회문제해결로서의 기업가정신’을 핵심 질문으로 하여 “지금까지 실천해 온 기업가정신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

세요.”, “어떠한 때에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업가정신의 의미가 사회나 국가에 어떠한 의미입니까?”등을 질문하였다. 면담을 실시하는 중에는 참여자의 이야기를 녹음하면서 참여자의 표정이나, 행동을 관찰하였으며, 강조하여 말하거나, 추상적인 이야기는 메모를 하였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면담한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사하였다.

### 3.2 연구 분석 틀(Framework)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현상학의 여러 분석 방법 중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였다.

- 1) 인터뷰 종료 직후 녹음한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다. 전체 내용을 읽고, 경청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탐색한다.
- 2) 각각의 기록으로부터 의미 있는 문장을 추출한다.
- 3) 의미 있는 문장에서 드러난 의미 있는 통찰로부터 의미를 도출한다.
- 4) 도출된 의미를 주제별로 범주화하고, 주제에 따른 범주가 타당하지 검토하기 위해 원기록물을 바탕으로 삭제되거나 추가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한다.
- 5) 본 주제에 대해 연구한 치밀한 분석 결과를 통합한다.
- 6) 현상에 대한 본질적인 구조를 도출한다.
- 7) 분석결과가 참여자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는지 참여자에게 확인하고, 분석 결과에 삭제된 부분이나 추가된 내용이 없다면, 분석 결과를 최종 결과물에 통합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에서 확인된 범주화를 통하여 참

여자들이 인식하고 경험한 국민의식과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기업가정신에 대해 기술하였다.

### 3.3 연구의 엄밀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

연구의 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엄밀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현상학적 접근에서 엄밀성은 현상학적 환원을 통한 것으로 왜곡된 것을 걷어내고 본질적이고 구별 가능한 사태 그대로 되돌려 놓는 실천적 작업이다(이남인, 2014).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면담에 참여한 5명의 참여자를 통하여 도출된 의미가 그들의 경험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Member Checking)하였고, 동료 검토(Peer Debriefing)를 실시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 IV. 연구 결과 고찰

본 연구 목적은 기업가정신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식과 사회문제를 들추어내고 기업가정신의 본질과 가치 속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하여 인터뷰한 결과, 연구 참여자 5명에게 나타난 의미 있는 진술은 63개이었으며, 이를 기초로 연구자가 구성한 의미는 41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의미 구성을 통해 15개의 주제가 형성되었으며 이것은 다시 6개의 주제 군으로 유목화 하였다. 국민의식과 사회의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대안으로서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본질적인 주제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통해 드러난 6개의 주제를 살펴보면, '편향된 가치로 인한 사회 구조의 불균형', '기존의 한계로 인한 사회의 악순환', '새로운 요구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유기체적 기업이 변화하는 동인으로서의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이

주는 역동성으로 인하여 기업의 선순환을 가져옴', '사회의 가치 창출에 기회를 주는 기업가정신'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주제는 현 사회의 문제인 동시에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가정신의 가치가 함의되어 있다.

### 4.1 편향된 가치로 인한 사회 구조의 불균형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기업가정신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가 편향된 가치로부터 오는 사회 구조의 불균형이었다. 편향된 가치란 사회구성원이 흔히 이야기 하는 좋은 직업과 대기업을 선호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편향된 가치는 사회가 쓸모 즉, 경제적 가치창출만을 강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이며 기업의 재벌 양극화 및 소득양극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저는 지금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 전부 판사, 변호사, 의사 다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수능시험을 쳐도 0.1%대 안에 드는 사람들이고, 다 그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국내의 범죄자, 국내의 범죄자의, 국내의 환자들 그럴죠? 지금 우리 글로벌화가 되려면 이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세계에 빠져나가서 정말로 보면, 미국이 뭘 가지고 돈을 벌고 있나요? 제조업인 가요? 다 서비스업이잖아요? 금융 이런 거잖아요. 그럴죠? 개들 원가 3달러짜리를, 100불이 3달러짜리인데, 그런데 우리는 100불에 사오고 개들이 만드는 제조원가는 3달러 밖에 안 되고, 돈장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태 그걸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안 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중략) 우리는 전부 다 내 애가 공부 잘하나 못하나 상관 없이 판사 의사 시키고 싶잖아요. 공무원 시키고 싶고, 그러니까 속되게 이야기 하면 안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전문대학 나온 사람도 창업은 뒷전이고 노상 삼성가려고 그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또한, 기업들이 구조가 침탑구조가 되는 이유는 중소기업에게 주는 참여와 경험보다 기업이 쓸모만

〈표 4〉 주제 별 범주화

주제 군	주제	구성한 의미
편향된 가치로 인한 사회 구조의 불균형	편향된 가치로 인한 기업의 양극화	쓸모만을 강조하는 기업
		기업의 양극화
	선택의 다양성이 부족해짐	편향된 가치로 인한 손실
		가치의 다양성이 없음
		진로의 스펙트럼이 좁음
기존의 한계로 인한 사회의 악순환	기성세대의 한계	일자리가 부족함
		기성세대와 다른 문화
	안주(安住)로 인한 사회의 느슨함	기성세대의 기업가정신 부재
		안주(安住)되어 있는 젊은이
	기업생태계의 악순환	기업가정신의 부재가 역동성이 없는 사회로 나타남
새로운 요구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기업가정신 활성화가 요구됨	기업생태계의 모순
		도전이 없는 기업
		정신적 진정성이 기반 되어야 함
		시민교육으로서 기업가정신 필요함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는 직업의 변화	정부주도의 창업진흥의 한계
혁신형 기업중심으로의 변화가 요구됨		
유기체적 기업이 변화하는 동인으로서의 기업가 정신	유기체로서의 동력	직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일자리 창출로서의 창업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동인	혁신적 기업의 창출
		경제 동력을 지속하려는 구조
		유기체로서 기업의 변화
기업가 정신이 주는 역동성으로 인하여 기업의 선순환을 가져옴	기업의 역동성을 주는 기업가 정신	경제 시스템의 동인이 되는 창업
		혁신지향이 요구됨
		기업가정신이 국가적으로 기여함
		기업가정신이 주는 사회 역동성
	기업생태계의 선순환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만들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이 주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통찰력	창업으로 인한 고용창출이 주는 경제발전	기업선순환의 기반인 창업
		기업의 선순환을 위한 기업가 정신 강화
	기업가정신이 주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통찰력	혁신과 기업가정신이 기업생태계의 붕괴를 막음
		창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함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회를 주는 기업가 정신	기업가정신에 대한 젊은이들의 삶의 가치관 변화	사회 올바른 구성원으로서의 기업가정신교육
		조직구성원으로서 통찰력을 주는 기업가정신 교육
	평생 직업으로서 창업 기회가 요구됨	가치창출을 위한 기업가정신이 필요함
		가치창출을 위한 기업가정신이 필요함
		젊은이들의 가치관의 변화
평생 직업으로서 창업 기회가 요구됨	삶의 가치에 의미를 둔 창업	
	사회적으로 점핑(Jumping)할 수 있는 창업	
평생 직업으로서 창업 기회가 요구됨	평생직업으로서 창업에 대한 요구	한번의 창업은 시도하게 됨
		평생직업으로서 창업에 대한 요구

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 받는 이유라고 여겨진다.

양극화되어 있는 기업구조, 경제구조라는 하는 걸, 실은 우리나라가 첨탑형 구조다, 일부 대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정말 이 하단에 다 되어 있고. 제가 R&D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 가운데서 중소기업이라고 했을 때 R&D를 단 한 번이라도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중소 제조 기업이 지금 11만개거든요.

이러한 편향된 가치로 인한 기업의 양극화는 사회에 가치의 다양성이 없어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 직업선택의 다양성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킨다.

그게 뭐냐면,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스펙트럼을 넓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정말 자기가 잘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걸 찾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보면, 아까처럼 대기업, 공무원, 의사, 자격증 그런 그게 다예요. 다. 그게 70~80% 차지하는 거예요. 진로 자체가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몇 프로나 이거죠.

개인의 가치로움의 부재와 사회의 편향된 구조는 사회의 책임을 넘어 공존공유의 문제로 이어지고, 정신적, 구조적 부재는 결국 사회시스템의 불균형의 결과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 4.2 기존의 한계로 인한 사회의 악순환

참여자들은 현재 사회 경제 및 구조 등의 악순환의 문제가 기성세대와 현 정부의 한계를 말하며, '안주함', '도전정신의 부족'으로 표현하였다. 기성세대의 순응하는 문화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구조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며 이는 기업가정신의 부재라는 기성세대의 한계로 드러난다.

도전적이거나 창의적인 것 보다는 거꾸로 순응하면서, 또 그 내에서 이런 문화들이 강했던 세대하고, 지금 젊은 세대는 우리하고 다른 좀 다른 부분들인데, 어쨌거나 기업가정신이라는 것은 전체적 분위기들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구조와 거의 뭐... 아주 심한 이런 상황에서 그걸 만들어 왔던 지금 기성세대하고, 지금 거기에 진입하기 전의 세대하고 그런 문화들이 같을 까라는 고민들이 조금 필요하고.

이 문제는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고 기성세대가 그걸 알아야지 자연스럽게 그게 된다는 거야. 학교에서 아무리 시켜도, 아무리 시켜도, 부모가 애가 기업가정신 되는 걸 모르면 그게 그냥 애가 미술학원, 수학학원 보내는 시간이 더 낫지 그런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의 진로와 직업에 안주(安住)하는 것은 도전정신과 역동성의 부족으로 이는 기업가정신의 부재이며, 이로 인해 역동성 없는 사회, 사회의 느슨함으로 나타났다.

젊은 사람이 그 총만한 에너지를, 뭔가를 가치창출이나 사회변화나 쏟는 것 보다 굉장히 안주되어 있다는 거죠.

학생들은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이런 전반적인 이런 부분이 다 돼 있지만,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도전 안하잖아요? 그게 앙트프러너유어 소사이어티(Entrepreneur Society)가 아닌 거죠. 다이내믹(Dynamic)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가장 우리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실패에 대한 불안정.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는, 소위 말하는 다이내믹(Dynamic)성이 없는 거죠. 도전하고 뭔가를 해보려는, 안정 위주의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역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는 기업가정신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정규직이라도 가서 일을 잘하든 못하든 노조에 가입해서 잘리지 말아야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제가 보면 역동성이 없다는 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기업가와 투자자의 불  
편함 속에 기업 구조의 모순과 정부의 한계, 그리고  
도전하지 않는 기업으로 인해 기업 생태계의 악순환  
은 지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대기업은 사지 말라고 하고, 너네는 돈  
쓰지 말고 돈 벌어서 세금 많이 내라고 그러고. 작은 기  
업들은 계속 해가지고 망해버리고, 엑시트(Exit) 이 안되  
니까 투자자들은 투자를 안 하고 그럴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삼성 엘지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저게 언젠가 저기에 닥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이나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자꾸.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옛날 다이얼패드(Dialpad), 천리안, 하이텔, 다  
그게 지금 통신사업자들이 무슨 가이드(Guide)로 만들  
었는지 다 발단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기업들은 다 대  
기업이 되어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애들이 뛰어 드는 거고. 우리나라는 4%도  
안 돼요. M&A가. 대기업들이 다 빼먹기만 하고. 그러니  
까 애들이 봤을 때는 그런 성공스토리가 안 보이는 거죠.  
도전을 안 하게 되고.

#### 4.3 새로운 요구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참여자들은 시대의 변화 속에 개인, 기업, 사회구  
조의 변화를 위해 기업가정신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개인의 정신적 진정성  
이 기반이 되고 시민의 소양으로서 기업가정신 교육  
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제가 볼 때는 기업가정신이 활발하고 함량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기반이 맞게 되어야하는데, 그 기반 이  
야기하면 정부가 해라 이게 아니예요. 우리나라 모든 국  
민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 혁신패러다임 속에서 정부 주도  
의 활성화에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형 기  
업 중심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첨  
탑구조의 기업구조에서의 변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대기업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혁신형 중소 및 중견기  
업 중심의 기업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지금과 같은 이제 어... 정부 주도의 기업가정신 또는  
창업진흥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혁신 패러다임에서의 예전의 그 대기업 위  
주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가는 그런 R&D가 아  
니라, R&D 사업화가 아니라 이젠 이제 좀 작은 단위  
에서의 창업 형태가 많이 만들어져야 경제 발전에도 더 도  
움이 되고, 이런 논리로 있어서, 혁신구조가 변화되는 차  
원에서의 창업, 이렇게 사실은 봐야 되는데,

축약형에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그냥 퍼부어서 가는 이  
런 형태, 또 대기업 중심구조, 경제구조. 어... 그런데 그  
것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혁신지향형으로 가면, 그러면 다  
양한 이런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 자체가 대  
기업중심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이제 이룰데면, 혁신형 중  
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변화해야한다는 건 이제 사실인데,

참여자들은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는 직업의 변화  
가 단순히 취업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창업과 같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변화를 말하고 있  
다. 이것은 변화하는 직업의 패러다임 속에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창출에 대  
안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청소년들이나 기업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일단은  
좀 세상이 바뀌고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제 직업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잖  
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저성장, 고  
용 없는 회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과거와 같이 어떤 취업에만 매달려서는 일자리 창출을  
할 데가 없다.

어떤 직업적 측면에서 그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나아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기업이나 공무원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새로운, 어떤 자기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창업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 4.4 유기체적 기업이 변화하는 동인으로서의 기업가정신

참여자들은 유기체적 기업이 변화하는 동인으로서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기업가정신은 유기체적 기업이 변화하는 동인이며,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동인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통해 끊임없이 혁신적 기업이 창출되고, 기업이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업과 경제가 성공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였다.

전체 문화들이 이런 혁신적 새로운 기업들을 끊임없이 창출해내고 하면서...

경제적, 경제구조가 경제의 동력들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로 바뀌어야 하는데, 어..

계속 변화, '기업도 유기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과거에 내가 늘상 어렸을 때 초기 성장단계에서 입었던 옷, 먹었던 것,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면서 바뀌어져야 되고, 옷도 다르게 입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늘상 나는 이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변화에 적응하지 않은 것.

참여자들은 기업가정신이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동인이 되며, 기업의 경우 혁신 지향적으로 기업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변화나 국가의 경제적 발전,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동인이 된다고 하였다.

창업이 중요한, 창업이 중요한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동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이란 이야기들이 정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진부하지만 기술축약형에서 이 탈 축약형 또는 이제 혁신 지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앙트프러뉴어 소사이어티(Entrepreneur Society)는 기업가정신이 총만해서...사회적인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발전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기여한다고 보죠.

#### 4.5 기업가정신이 주는 역동성으로 인하여 기업의 선순환을 가져옴

참여자들은 기업의 역동성과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것이 기업가정신이며, 국가 경제 발전이 기업가정신을 통해 일자리 및 고용 창출의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우선 기업가정신이 사회를 역동적이게 만들고,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며 기업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기업가정신이 활발해지면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돌아간다고 봐요.

사실은. 그런 전통시장, 낙후된 시장에 젊은이들이 가서, 거기서 새로운 역동적인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귀농하는 사람들도 보면, 시골은 다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데, 젊은이가 내려가서 새로운 비즈니스 만들고, 그런 게 새로운 역동적인 사회를 만드는 거죠. 사회의 어떤 생태계 측면에서도 굉장히 건전한 일이에요.

대부분 다 이제 성장을 하려는 기업에 있어서는 R&D 투자의 문제인데, 이 R&D 투자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가라고 해보면 CEO 거든요, CEO의 마인드. CEO가 신

시장을 얼마나 개척하려고하는 도전정신을 갖고 있고. 또 사람의 문제도 굉장히 크데요,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나 투자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 R&D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또한, 창업과 기업가정신은 기업생태계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되며, 기업들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선순환의, 제대로 된 앙트러프러너(Entrepreneur)들이 창업도 하고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죠. 그럴죠?

그러니까요. 자기 세이브(Save) 하고, 자기를 또 투자하기도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창업 때는 CEO의 기업가정신이 가장 중요하고, 일로 갈수록 조직 내에서의 조직관점, 혹은 사내 기업가정신에서 앙트프러너십(Entrepreneurship)의 역량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은 기업가정신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예, 그래도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업전주기 관점에서 기업을 엑시트(exit)하는 것도 실은 대단한 기업가정신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넘겨주고 또다시 또 다른 창업.

제가 최근에 기업생태계 연구하면서 우리나라 가운데 제조업 붕괴설 이거를 시나리오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망할 것이고 한계 기업들이 얼마고, 여기에서 혁신하지 않으면, 그렇게 됐을 때 26%가 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그럼 나머지는 정말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그런 기업가정신을 갖춘 CEO들이 있어야만 글로벌 환경 하에서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 생태계의 활성화는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크며,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제 카우프만 재단(Kauffman Foundation)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 기업의, 그 뭐냐면, 연령, 5년 주기로 해서 다 잘라봤어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 있는 기업이 고용창출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지,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5년 이내의 스타트업(Start-Up) 기업들이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커요...

결국은 기존에 어떤 대기업 형태, 중소기업 형태를 가지고는 1인당 GDP를 3만 불 이상 끌어올리는데 문제가 있고, 일자리 창출도 역시 또. 결론은 뭐냐면, 경제발전과 어떤 일자리 창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서는 창업활동이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 4.6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회를 주는 기업가정신

참여자들은 기업가정신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문제 해결에 대한 통찰력을 주고, 젊은이들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주며, 평생 직업의 계획에 있어 창업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회를 준다고 하였다. 우선 기업가정신 교육은 사회 올바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조직 구성원으로서 맡은바일에 통찰력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였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수없이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예요.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해가지고 꼭 창업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지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취직을 하면, 이 사람은 그런 교육을 안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인사이트(Insight)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회의에 참여를 해서 자기가 뭔가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예요. 이미 시각이 틀리는 거고.

또한 기업가정신은 조직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어 조직의 발전을 이끄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지금은 사업이라는 게 언제든 본인의 문제인식을 해결하기 위한 틀로써 작용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모델을 짤 때 창업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어떤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조직이 기업일 수도 있고, 경제 쪽으로만 국한해서 볼 때, 기업이나 뭐 지역사회나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그런 부분들도 다 포괄해서 그런 거죠.

기업가정신은 기업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며,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며, 삶의 가치에 의미를 줄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이제 최근에 젊은 층이나 조금 나이 있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조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벌지는 않지만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귀향귀촌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슬로우 라이프(Slow Life)를 즐기면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가치관 변화가 있고요.

사회적 인식으로 보면 삼성맨과 도시 민박업은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지. 삶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훨씬 행복한 거야.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 나름대로 꿈꾸는 있는 점핑(Jumping)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었다면 지금은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창업이 옛날에 ‘개천에서 용 난다.’는 그런 어떤 사회에서의 몇 단계를 점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중략) 요즘:: 고시 패스했다고 요즘은 로스쿨로 다 바뀌었고, 그런 게 없고. 그러면 결국은 부의 대물림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밑에 있던 친구는 도저히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구조예요. 그걸 뛰어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창업이라는 거죠.

참여자들은 평생 직업경영 관점에 있어서 창업은 요즘 같은 고령화시대에 한번은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제 2의 삶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준비가 요구되는 데 창업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고령화, 백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렵게 취업을 해도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한 40대 중반? 짧으면, 아니면 50대 초중반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죠? 그러면 나머지 한 30년 이상은 살아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 언젠가는 한 번은 창업을 해야 되는 거죠. (중략) 제 고령화 시대를 되기 위해서는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를 준비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평생 직장경영, 평생 직업계획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결국은 창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창업을 해야 되는 시대, 그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직장생활 25년 하고 그 나머지 25년은 또 살아야 되니까, 그때 취업할 거냐? 어렵다는 얘기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취업한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혜택이 안 되고, 그럴 바에는 좀 자기가 평생 직업을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중략)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자기가 즐기면서 평생 할 수 있는 거. 평생 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을 찾는, 그런 변화들이 대단한 거죠.

## V. 논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문제해결 및 국민의식으로서의 기업가정신의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 대하여 도출된 범주에 대해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5.1 편향된 가치로 인한 사회 구조의 불균형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기업가정신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가 편향된 가치로부터 오는 사회 구조의 불균형이었다. 편향된 가치란 사회구성원이 흔히 이야기 하는 좋은 직업과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들을 말한다. 이러한 편향된 가치는 사회가 쓸모만을 강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이며 기업의 재벌 양극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인

이 추구하는 가치의 근본은 공감능력이며,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란 이제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 공존공유에 대한 것이다.

산업구조와 기업 구조에 관한 범주에는 재벌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성장 정책과 노동정책에 연관되어 만들어져야 한다. 노동 구조에는 비정규직과 임금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노사관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노동 공급과 국내 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과 보육을 포함한 인구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루는 기업 지배 구조 정책은 사회 전반의 반부패 정책, 공정 경쟁 정책과 연관된다. 금융 구조는 산업구조와 기업 구조를 뒷받침하는 산업으로서 금융의 역할, 서비스산업으로서 금융 산업 자체의 발전,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사회구조와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는 지방분권화,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정책들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각 분야별로 수많은 정책들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서로 보완되기도 하고 충돌되기도 한다.

## 5.2 기존의 한계로 인한 사회의 악순환

참여자들은 현재 사회 경제 및 구조 등의 악순환의 문제가 기성세대와 현 정부의 한계를 말하며, '안주함', '도전정신의 부족'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표현된 단어는 경제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 및 정신의 문제가 기존 경영패러다임에서 간과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신과 물질의 통합

이 요구되며 성공적인 사회 경제에 있어 물질과 함께 정신적인 부분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기성세대의 순응하는 문화는 대기업 경제력 집중구조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며 기업가정신의 부재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기업가와 투자자의 불편함 속에 기업 구조의 모순과 정부의 한계, 그리고 도전하지 않는 기업으로 인해 기업 생태계의 악순환은 지속되고 있다.

## 5.3 새로운 요구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이제는 현 시대의 문제를 기존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미래의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말한다. 참여자들은 시대의 변화 속에 기업가정신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기업가정신 교육과 일자리창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인의 정신적 진정성이 기반이 되고 시민의 소양으로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또한 기업의 경우 정부 주도의 활성화에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형 기업 중심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기업가정신의 부흥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 가능하다. 기업가정신은 가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혁신"을 강조하며, 경제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가치와 쓸모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는 직업의 변화가 단순히 취업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창업과 같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변화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변화하는 직업의 패러다임 속에 창업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창출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5.4 유기체적 기업이 변화하는 동인으로서의 기업가정신

참여자들은 유기체적 기업이 변화하는 동인으로서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기업가정신은 유기체적 기업이 변화하는 동인이며,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동인으로 생각하였다. 기업가정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적 기업이 창출되며, 기업이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업과 경제가 성공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 5.5 기업가정신이 주는 역동성으로 인하여 기업의 선순환을 가져옴

참여자들은 기업의 역동성과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것이 기업가정신이며, 국가 경제 발전이 창업을 통해 일자리 및 고용창출의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우선 기업가정신이 사회를 역동적이게 만들고,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며 기업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산업구조와 기업 구조에 관한 범주에는 재벌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성장 정책과 노동정책에 연관되어 만들어져야 한다. 노동 구조에는 비정규직과 임금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노사관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노동 공급과 국내 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과 보육을 포함한 인구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루는 기업 지배 구조 정책은 사회 전반의 반부패 정책, 공정 경쟁 정책과 연관된다. 금융구조는 산업구조와 기업구조를 뒷받침하는 산업으로서 금융의 역할, 서비스산업으로서 금융 산업 자체의 발전,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사회구조와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는 지방분권화,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정책들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각 분야별로 수많은 정책들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서로 보완도기도 하고 충돌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업 생태계의 활성화는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크며,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 5.6 사회의 가치 창출에 기회를 주는 기업가정신

참여자들은 기업가정신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통찰력을 주고, 젊은이들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주며, 평생 직업의 계획에 있어 창업 기회를 주는 등 사회의 가치창출에 기회를 준다고 하였다. 기업가정신의 주요 단어는 혁신이며, 혁신 안에는 가치창출이 내재해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젊은이들의 삶의 가치관은 기존의 안정된 직장 보다는 삶의 질과 함께 삶의 가치에 의미를 두었다. 기존의 '개천에서 용난다.'는 의미는 이제는 판사, 의사가 아닌 창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도약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대의 흐름 또한 기존의 직업관과 다르게 평생직업으로서의 창업이 각광 받는 사회가 되었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식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기업가정신의 본질과 가치를 찾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교육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민의식과 사회문제해결로써 기업가정신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업가정신의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의 방법은 Colaizzi (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참여자 5명을 대상으로 7

회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방문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연구의 범주는 ‘편향된 가치로 인한 사회 구조의 불균형’, ‘기존의 한계로 인한 사회의 악순환’, ‘새로운 요구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유기체적 기업이 변화하는 동인으로서의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이 주는 역동성으로 인하여 기업의 선순환을 가져옴’, 사회의 가치 창출에 기회를 주는 기업가정신’으로 총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식 성숙과 사회문제해결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가정신의 개념이 실제 정책 및 교육 현장과 같은 적용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문제해결과 시대정신 함양을 위한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배종태, 차민석(2009),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활성화,” **벤처경영연구**, 31(1), 109-128.

오해섭, 맹영임 (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4-R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남인(2014).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채원, Craig, G., 한상희(2014). **새로운 모색과 창조: 기업가정신 워크북**. 서울: 중소기업청,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현숙, 이병희, 이상명(2012), **기업가정신 교육설계**, 대전: 중소기업청.

한국연구재단(2013), **기업가정신 강좌개설현황**, 한국연구재단 발표자료.

홍재근(2014),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서울: 중소기업연구원.

Chandler, A. D. (1977). *The visible hand: The management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Colaizzi, P.F(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 (Ed.).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rucker, P. F. (1985). 이재규 역(2013). **기업가정신**. 서울: 한국경제신문 한경 BP. [원저: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OECD(1999). <http://www.oecd.org>

Schumpeter, J. A.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Vol. 55). Transaction publishers.

Timmons, J.(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4th ed.)*, Boston: McGraw-Hill.

World Economic Forum(200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9-2010*. Geneva: World Economic Forum.

World Economic Forum (2010)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0-2011*. Geneva: World Economic Forum.

## Entrepreneurship as the Solution to Social Problems

Chaewon Lee\* · Kyoung Kyoon Kang\*\*

### Abstract

Entrepreneurship has been a driving force for economic growth. However, the definition of entrepreneurship has been defined as a way of thinking for creating value or defined as activities related to start-up.

This kind of narrow definition led the misunderstanding to the public. Also, the entrepreneurship policy makers and educators have used the concept of entrepreneurship as a start-up activities. With this mis-concept of narrow definition should broaden to the right and broad concept of entrepreneurship as the zeitgeist and the solutions to social problem.

For redefining the entrepreneurship concept, we conducted the survey with experts in the entrepreneurship industry such as professors in entrepreneurship division at university level and experts in entrepreneurship industry such as policy makers in the government related organization. Based on Colaizzi(1978)'s research, the phenomenologist view is useful to see the core value of phenomena. Researchers did in-depth interview to redefine the definition of entrepreneurship.

We got the 6 key concepts which they have to b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entrepreneurship through in-depth interview.

First, entrepreneurship can solve the inequity issues in terms of social value and economic side. Second, it can be a solution of unbalanced bad cycle of society. Third, it can be a solution to adjust the current economic paradigm. Forth, entrepreneurship can be a driving force of economic and social dynamics. Fifth, it will create the positive system to create the effective results. As a sixth key point, entrepreneurship can be a source of social value creation beyond the economic value creation.

These core values can lead the more broad perspective to understand entrepreneurship concept as a solution of social problem and the zeitgeist.

---

\* Associat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First Author

\*\* Associate research Fellow,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Corresponding Author

Using this understanding, entrepreneurship can be applied to the economic sectors and social sectors as well. Also, it will bring the right direction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situation all students have to take the entrepreneurship course as a mandatory course.

Key Words: Social problem Solving, Entrepreneurship, Defini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Entrepreneurship